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47 “우리도 뛰다”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여출전하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소장·임희진)직원들이 사무소 입구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매일 받아온 명산의 정기 산 보호운동에 쏟아야죠”

■ 무등산 공원 관리사무소

“무등산의 명예를 위해 힘차게 달린다.”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소장·임희진·55) 직원들의 각오가 남다르다. 대회에 출전하는 15명의 직원들은 이번 마라톤 축제를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마라토너들에게 무등산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직원들은 이번 대회가 첫 출전이지만 매일 같이 무등산이 품고 있는 16개의 등산로를 순찰하고 있어 체력만큼은 자신있으며 좋은 성적으로 완주하겠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노원기(52) 관리 담당관은 “50대의 나이지만 매일 같이 무등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산을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건강 나이는 어느 직원들 못지 않다”며 “건강과 인식대·서석대 관망대와 탐방로, 생태해설관 설치공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대회 치너출전...15명 직원 사기충천

첫 출전인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5km 구간을 뛸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본격적인 마라톤 레이스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서상미(여·30)씨는 “달리기는 잘 못하지만 업무적으로도 체력관리가 필요한 만큼 마라톤을 통해 체력을 키워나갈 생각이

다”며 “무엇보다 직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뛰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나오자 없이 전 직원이 함께 끝인 라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임희진 소장은 “뒤편지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함께 결승선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며 “업무 특성상 팀워크와 체력이 중요한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두 가지를 다 챙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석대 관망대 공사 등 무사고 기원도

평소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막상 시작할 업무가 나지 않았던 임 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마라톤에 뛰어들게 됐다”며 환한 표정이다.

이번 대회 출전으로 직원들과 마음을 열고 격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은 또 다른 수확이다.

공민 측은 이번 대회를 통해 ‘깨끗한 무등산 가꾸기 운동’을 홍보하고,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등산의 우수성을 알려 다 시금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외지 단체 탐방객 대표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9%가 ‘기회가 되면 다시 찾고 싶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만큼 직원들의 사기도 높다.

임 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직원들 모두 마라톤을 뛰는 자세로 무등산 보호와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달려나겠다”며, 명산 무등산을 가꾸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한항공 ‘코트 반란’

1년만에 삼성화재 제압...선두 1점차 추격

‘주포’ 보비·장광군 맹활약...3-2 대역전극

대한항공 점보스가 선두를 질주하던 삼성화재 블루팡스를 상대로 1년 만에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펼쳐며 1위 진입에 희망을 살렸다.

대한항공은 13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V-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삼바특급’ 보비와 토종 주포 장광군의 활약으로 삼성화재에 3-2로 극적인 역전승을 낚았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10승(3패) 고지를 밟으며 쾌조의 3연승 행진으로 선두 삼성화재(11승2패)를 승점 1점 차로 추격, 정규리그 1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이 삼성화재를 꺾기는 지난 2006-2007시즌이던 지난해 1월 3일 3-2 승리 이후 1년 만이고 프로 출범 후 두 번째다. 올 시즌 1, 2라운드 패배를 실욕했고 통산 상대전적은 2승18패가 됐다.

반면 4연승을 달리던 삼성화재는 대한항공에 달미를 잡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삼성화재가 먼저 기선을 잡았다.

대한항공은 첫 세트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들고 보비가 스파이크 쇼를 펼쳐며 12-9로 앞서가다 17-17 동점을 허용했고 삼성화재는 22-22에서 고희진의 속공과 석진욱의 블로킹에 이어 안젤코가 보비의 오픈 공격을 가로막아 세트를 가져갔다.

그러나 반격에 나선 대한항공이 보비, 장광군, 신영수 등 공격 3각 편대로 삼성 코트

를 폭격했다. ‘조커’ 강동진을 투입해 승부수를 띄운 대한항공은 14-14부터 21-21까지 동점 팽리를 이어가다 안젤코의 강력한 스파이크에 22-23 역전을 당했지만 23-23에서 강동진의 시원한 대각선 강타에 이어 상대 주포 안젤코의 백어택이 라인을 벗어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대한항공은 3세트 초반부터 스파이크 쇼를 펼쳐며 연속 5점을 쓸어담은 뒤 보비의 오픈 강타가 작렬하면서 16-8, 더블 스코어로 앞서나 삼성화재의 거센 추격에 휘둘러 22-21로 턱밑까지 쫓겼다.

그러나 안젤코의 서브 범실에 편승해 23-21로 달아난 대한항공은 24-22에서 상대 센터 신선호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는 행운 속에 보비가 그림 같은 백어택으로 승부의 마친표를 찍었다.

대한항공은 5세트 4-6으로 끌려가던 초반 강동진의 오픈 공격과 상대 잇단 범실에 편승해 7-6으로 전세를 뒤집은 뒤 7-7에서 보비가 수직에서 내리 꽂는 오픈 강타 2개로 균형을 깬다. 삼성화재는 11-12에서 안젤코의 서브가 네트에 걸리고 12-13에서도 안젤코의 백어택이 막혀 역전 기회를 날렸고 대한항공은 14-13에서 이영택의 전광 석화 같은 속공으로 역전승의 대미를 장식했다.

한편 LIG손해보험은 아마추어 초청팀 한국전력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파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3일 인천도원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V리그에서 대한항공 보비가 삼성화재 블로킹벽을 피해 스파이크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3-2로 역전승 했다. /연합뉴스

올림픽야구팀 후보 30~32명 오늘 확정

3월7일부터 1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베이징올림픽 야구 대표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술위원회가 14일 대표 후보 30~32명을 확정한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과 윤용근 기술위원장은 지난주 사전 조율을 하고 새 대표팀 밑그림을 그렸다.

김 감독이 서재응(KIA), 김선우(두산), 김광현(SK) 등 선발 투수 3명과 이승엽(요미우리)을 꼭 뽑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관심은 한국프로야구 거목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냐 여부다.

김 감독은 지난해 아시아예선전에서 뛰었던 선수를 주축으로 팀을 꾸릴 예정인 반면 기술위원회는 최희섭(KIA), 심정수(삼성) 등을 추가 선수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 김 감독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발자국’을 중시할 것인데 반해 기술위원회는 지난해 예선전에서 본선 직행에 실패한 이유로 타선 부진을 꼽고 한 방을 때려줄 수 있는 선수를 뽑기를 바라는 셈이다.



14일(월)

▲2008 PGA 소니 오픈 FR(09:00-SBS 스포츠-SBS골프)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AT.마드리드: 발렌시아)(05:00-KBS N SPORTS)

▲07/08 여자프로농구(신세계: KB국민은행)(18:50-SBS스포츠)

전남 초·중·고 선수 4천여명 체전 대비 동계훈련 돌입

전남도내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한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육상의 36종목 4천212명(초 1천725명, 중 1천466명, 고 1천21명)선수들이 오는 2월 16일까지 40일간 학교별 자체계획에 의한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게 된다.

초·중등부는 제37회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해 동계체력훈련, 전술훈련과 전지훈련을 통해 기량향상을 꾀하고, 고등부는 전국체전 개최지로 삼위일상을 위한 동계체력훈련,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또 평가전을 통한 타 시·도 전력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Magic Free Student Recruitment). It features a logo with a magic wand and a star, and lists details about the course, including dates,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매직&매직 아카데미'.

Advertisement for '서경빌딩임대' (Seokyeong Building Rental).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odern building and lists rental details, including location, siz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368-8889'.